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과정에서 교사지지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노선덕* , 강길현**

A Research on the Control Effect of Teacher's Support in the Course of School Adaptation for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Seon-Deok Rho * , Gil-hyun Kang **

요 약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이중문화스트레스 요인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교사지지가 보호요인으로서 조절효과가 어떻게 나타내는지 검증해 보았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문화가정 아동 중 초등학교 3학년이상 6학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다문화가정 아동의 차별경험과 언어갈등은 학교생활적응의 학습활동에 영향을 미치며, 교사지지는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언어갈등이 학교생활적응의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교사지지는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Keywords : 이중문화스트레스, 교사지지, 학교생활적응

Abstract

In this study, we studied the influence that the stress placed on children (originating from presence of two cultures at multi-cultural families) can have on adapting to school, and further assessed the control effect of teachers' support as a protection factor.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the research, we identified samples of children between Grades 3-6 who came from multi-cultural families to carry out surveys. Based on the results of our analysis, the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and language conflicts

•제1저자 : 노선덕 , 교신저자 : 강길현

•투고일 : 2015. 1. 27, 심사일 : 2015. 2. 2, 게재확정일 : 2015. 2. 5.

* 우아지역아동센터(Wooa region Child Center)

** 호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Lecturer, Dept of Social Welfare, Howon University)

※ 본 논문은 2013년 수행한 학위논문을 수정 보완함.

experienced by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ffected their academic activities (among adaptation factors to school experiences), while teachers' support appeared to have a control effect. However, for the influence of language conflicts on friend relationships (among adaptation factors to school experiences), teachers' support did not have a control effect. As such, based on this research result, we've proposed plans to improve school adaptation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 Keywords : Stress from multi-cultural background, Teachers'support, Adaptation to school experiences

I. 서 론

최근 우리는 국제적으로 인적 교류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다양한 인종적·종교적·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는 다문화사회(Multi-cultural society)로 변화하고 있다. 안전행정부 통계[1]를 살펴보면 국제결혼은 약 26,000건의 전체 결혼 8%에 달하며, 10가구 중 1가구는 다문화 가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다문화 가정 아동은 전체 학생 대비 1%를 초과하는 67,800명으로서 초등학생 비율은 48,297명(71.2%)으로 집계되었다.[2] 그러나 출산율 감소로 일반 학생은 매년 20만 명 이상 감소하지만 다문화가정 아동은 매년 증가 추세[3]로 이어지면서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보건사회연구원의 “다문화가족 아동의 사회적응실태 및 아동 복지서비스 지원방안” 연구보고서를 살펴보면, 학교생활적응 정도에서 ‘학교수업에 대한 적응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아동의 이유로 ‘학업부담과 스트레스가 주된 요인’이라고 밝히고 있다.[4] 또한 교육부(‘13. 3~’14.2) “다문화가정 학생 학업준단을 통계”에서도 초등학생 328명(0.8%), 중학생 140명(1.2%), 고등학생 572명(1.0%)이 ‘학업을 중간에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 그런데 하연 울산지역에서는 중도 입국한 다문화 학생이 ‘언어 문제, 다른 문화에 대한 부적응으로 학업을 포기’하는 비율 약 7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5]. 이처럼 다문화 아동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가장 높은 이유 중에는 “학교 공부를 따라가기 힘들다”고 대답하였다[6]. 이렇게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는 ‘구문이나 발음과 같은 언어구조’가 일반 아동에 비해 더 낮은 수행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7]. 또한 다문화가정 아동 및 청소년들은 한국 문화와 상이한 모국(母國)의 문화를 접촉함으로써 ‘이중문화에 대한 충돌 및 차이로 스트레스가 발생’되며, 자신이 살고 있는 한국의 문화와 모(母)가 유지해온 문화의 가치와 전통 사이에서 갈등한다고 보았다[8]. 예를 들어 한국의 생활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어머니 밑에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9]. 이들은 한국 사회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주 사용언어는 한국어가 되는 경우도 많지만 ‘아버지의 외국어 학습 여부와 어머니의 한국어 학습여부’에 따라 가족 간 의사소통의 형태는 다를 수 있다[10]. 특히 ‘부모 간 언어가 상이하고 어머니의 한국어 습득이 되어있지 않을 경우 아동의 한국어 습득이 지체되어 학령기 학습 선수 기술을 습득하지 못할 우려’가 크다[11]. 그 밖에 다문화가정 학령기 아동은 생활 중심이 “가정에서 학교”로 옮겨짐에 따라 학업성취와 규범준수를 포함한 학교적응은 학령기 이후 청소년기와 성인기 발달과도 긴밀한 관계가 있다[12]. 그래서 많은 선행연구들은 학교생활적응을 위해서는 ‘담임교사, 학교친구, 학교행사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13].

그러나 많은 연구들은 다문화가정 아동이 학교생활 적응을 원활히 습득할 수 있는 연구는 매우 심층적이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부모의 경제수준과 학력 또는 모(母)의 한국어 실력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을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과 가정하였다. “이중문화스트레스 요인인 차별경험, 언어갈등이 학교생활적응의 학습활동,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교사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해 봄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이중문화스트레스의 요인

다문화가정 아동의 이중문화스트레스란, 외국인 부모에서 오는 사회적 편견으로서 “차별경험과 언어갈등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이는 사회의 문화와 관습, 사회적 기준과 전통문화의 가치 등의 영향에서 갈등을 겪게 되며, 이중문화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높은 우울과 불안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이중 문화 스트레스는 갑작스럽고 과다한 변화, 그리고 기존 지지 체계에 대한 상실감과 더불어 적응능력에 가해지는 과도한 부담에서 기인한 스트레스로 심리적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14). 그러므로 이중문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역기능적 스트레스는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심리적 부적응을 일으켜 ‘정체성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15).

[16]에서는 가정에서 경험하는 문화가 사회에 소속되기 위한 조화를 적절히 이루지 못할 경우 ‘정체성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이중문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로 ‘심리사회적 문제를 유발’하는 위험요소로도 작용 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위에서 지적된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문화가정 아동이 이중 문화에서 겪는 스트레스 요인을 “차별경험과 언어갈등”으로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첫째, 차별경험이다. 차별은 편견을 기초로 한 민족, 집단 또는 그것에 속하는 개인에 대한 객관적 행위라고 볼 수 있다. [17]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아동이 받고 있는 차별 경험은 개인적, 문화적 성격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개인적 인종 차별은 개인적 미시적인 수준에서 경험하는 인종차별로 ‘자신의 피부색’ 때문에 놀림을 받는 것이다. 문화적 인종 차별은 ‘지배적인 집단의 문화적 관습이 일반적이며 우월하다는 인식 차별’로 보았다(15). 특히 이들은 가정에서 보내는 시기에는 차별에 대한 거부감이나 편견은 없지만 학령기에 접어들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고 보았다.

둘째, 다음으로 언어갈등이다. 다문화가족 아동의 경우 ‘부모 간 언어가 상이’하고, 특히 어머니가 한국어 능력이 미숙할 경우, 한국어 습득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상호작용에도 제한을 주어 발달단계에 따른 ‘언어습득이 지체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18). 이로 인해 학령기에 들어가서도 언어습득이 부진하면 학습활동의 교사와 교우관계 등의 의사소통에 갈등

을 빚게 되고 학습부진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말하기에서 언어발달이 뒤쳐질 경우 읽기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학습을 위한 언어 사용은 학령기 언어장애를 진단 평가할 때 가장 중시해야 할 부분이며, 읽기는 학습을 위한 언어 사용력을 살피는 구체적인 한 영역이 된다(19). 따라서 본 연구는 “언어갈등이 학교생활적응”에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았다.

2. 교사지지

교사가 다문화 가정의 특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 교사지지를 통해 지적 성숙은 물론 정서적, 사회적 적응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교사와의 친밀한 관계를 맺은 아동은 갈등적이고 의존적인 관계를 맺은 아동보다 긍정적인 또래 관계를 맺는 경향이 있으며, 교사 및 또래관계가 학교적응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 또한 [13]에서도 학생이 교사를 긍정적이고 수용적이며, 자신에게 도움을 준다고 지각할수록 학교적응에 잘한다고 하여 교사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9]에서도 교사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이 높고, 다문화교육에 대한 지식이 많으며 적극적인 때 다문화가족 아동들의 학업성취도가 높을 가능성이 많다고 하였다.

그러나 교사지지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 연구도 있다. ‘산만한 수업태도’, ‘자신감 부족’, ‘수업 이해도’가 낮은 다문화가정 아동은 교사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존재한다고 보았다(21). 또한 위 연구에서는 교사의 다문화가정의 특성에 대한 이해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다문화에 대한 “교사 연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였다. [22]에서도 다문화가족 아동들은 교사와의 관계가 형성되지 못함으로써 적절한 지지를 받지 못하며, 교사 역시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경험부족과 개별학습 지도의 어려움 등으로 학생 간에 상호작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다수의 연구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에게는 다문화에 대해서 전공교육을 받은 전문교사가 무엇보다도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이중문화 스트레스요인으로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교사지지가 보호요인으로서 조절역할”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3. 학교생활적응

학교는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고 배운 지식과 기술을 실천’하여 사회환경을 제공한다. [18]에서는 학교적응의 개념을 학교라는 환경 안에서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학교 환경의 요구에 따라서 자신을 변화시키며 학교와 자신의 관계

를 조화롭게 성공적으로 발전시켜 가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23]에서는 성공적인 학교적응을 위해서는 '학업성적만큼 대인관계 수행이 중요하면서 교과외의 숙달, 효과적인 학습전략, 시험의 수행능력, 대인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 대인관계 정체성 개발을 위한 노력, 집단소속의 감수성, 다른 사람과의 표준적인 역할 수행, 친구들의 기대에 적합한 행동' 등이 중요 변인이라고 하였다.

그 밖에도 [24]에서는 학교생활적응을 '교사, 다른 학생 등 의미 있는 타인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학교생활 및 학업 성취에 높은 동기와 흥미를 가지며 학교규범을 성실하게 준수하는 역할'을 수행해 가는 것으로 정의 하였다. 이와 반대로 학교생활 부적응은 '학생이 학교와 사회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부적응 학생은 '지적, 감각적, 건강적 요인이 정상인데도 학습이 부진하고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자아개념으로 인해 불안, 열등감, 소외감, 위축, 공격성 등이 보이며 학교사회의 질서나 규범과 조화를 이루어 지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22]. 따라서 다문화가정 아동은 서로 다른 언어와 생활, 교육, 사고방식, 관습, 문화를 가진 구성원으로서 학교가 요구하는 규범과 질서를 준수하고, 학업의 성취와 교사, 교우 등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계망을 형성할 필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원인들을 다음과 같이 구성해 보았다.

첫째, 학교생활적응 중 학습활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 보았다.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학습활동의 경우에는 본질의 총체적 이해, 맥락 고려, 정확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하며,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목적으로 한다[25]. 이러한 학생들은 학습활동에서 제시하는 어휘의 수준과 경향을 파악하고 예습과 복습, 또는 수업에 매진할 것으로 보았다.

둘째, 학습활동적응 중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구성해 보았다. 특히 학령기 아동들은 '자신의 주변을 통제할 수 있는 원만한 교우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학교생활에서도 실패하여 집단으로 남을 소외시키는 등의 무책임한 행동들을 하는 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2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생활을 적응하기 위해서 교우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고찰해 보았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이중문화스트레스의 요인이 학교생활적응의 요인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교사지

지가 조절효과를 어떻게 나타내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모형(그림 1)과 가설설정(표 1)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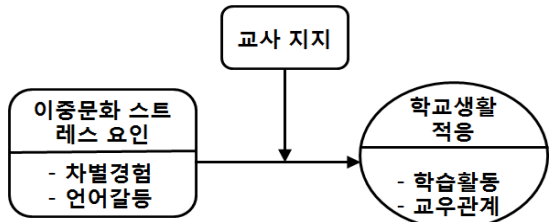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Fig. 1. research model

표 1. 가설설정
Table 1. Establishing a hypothesis

| |
|---|
| <p>가설1] 이중문화스트레스 요인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p> <p>1-1-1 차별경험은 학습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2 차별경험은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1 언어갈등은 학습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2 언어갈등은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p> <p>가설2] 이중문화스트레스 요인은 교사지지에 따라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이다.</p> <p>2-1-1 차별경험은 교사지지에 따라 학습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이다. 2-1-2 차별경험은 교사지지에 따라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이다. 2-2-1 언어갈등은 교사지지에 따라 학습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이다. 2-2-2 언어갈등은 교사지지에 따라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이다.</p> |
|---|

IV. 실증분석

1.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표본의 특성

본 연구는 J도에 거주하면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다문화가정 3학년 이상 6학년 학령기 아동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2년 10월부터 약 4주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실시하였으며, 200부를 설문하여 다문화가정 아동의 특성상 119명의 응답결과를 검증하였다.

2. 측정도구 검증

본 연구의 측정도구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타당도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인적재치가 모두 0.4 이상으로 나타났고, 수렴적 타당도와 차별타당도 역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 α 계수가 모두 0.6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할만한 수준으로 보였다

표 2. 신뢰도 분석
Table 2. Reliability analysis

| 변수명 | 항목 수 | Cronbach-Alpha | 점수 의미 |
|-------|------|----------------|----------------------------|
| 차별 경험 | 10 | .761 | 차별경험이 낮을수록 학습활동이 높음 |
| 언어 갈등 | 7 | .863 | 언어갈등이 낮을수록 학습활동이 높음 |
| 학습 활동 | 7 | .837 | 학습활동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높음 |
| 교우 관계 | 6 | .682 | 교우관계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높음 |
| 교사 지지 | 5 | .812 | 교사지지가 높을수록 학습 활동과 교우관계가 좋음 |

3. 1. 가설 검증

본 연구에서는 다중회귀분석 방법으로 이중문화 적응스트레스 요인인 차별경험, 언어갈등과 학교생활적응요인의 학습 활동, 교우관계 또한 교사지지 등의 가설검증을 살펴보았다.

3. 2. 차별경험과 언어갈등이 학습활동에 미치는 영향

차별경험과 언어갈등이 학습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33.1%이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2.699$, $p<.05$). 부학력($\beta=.373$, $P<.10$), 학교성적($\beta=.286$, $P<.10$), 차별경험($\beta=-.271$, $P<.10$)이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학습활동이 높고, 학교성적이 좋을수록, 차별경험이 낮을수록 학습활동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언어갈등이 학습활동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설명력은 37.0%이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2.815$, $p<.01$). 이는 부학력($\beta=.415$, $P<.10$), 학교성적($\beta=.310$, $P<.05$), 언어갈등($\beta=-.271$, $P<.10$)이 영향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즉, 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학습활동이 높고, 학교성적이 좋을수록, 언어갈등이 낮

을수록 학습활동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학력, 성적, 차별경험, 언어갈등은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습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차별경험과 언어갈등이 학습활동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결과

Table 3.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over the influence of discrimination experience and language conflict on academic activities

| 모형 | 모 델 1 | | | 모 델 2 | | |
|---------|-----------------------------|---------|----------|-----------------------------|---------|---------|
| | B(S.E) | β | t | B(S.E) | β | t |
| (상수) | 3.579(.455) | | 7.868*** | 3.430(.455) | | 7.541 |
| 성별 | -.214(.164) | -.166 | -1.309 | -.246(.162) | -.191 | -1.525 |
| 나이 | .200(.438) | .057 | .457 | .334(.437) | .094 | .764 |
| 학년 | -.174(.165) | -.0136 | -1.050 | -.190(.163) | -.148 | -1.167 |
| 경제 수준 | -.439(.259) | -.222 | -1.696 | -.333(.262) | -.168 | -1.272 |
| 부학력 | .856(.312) | .373 | 2.741** | .953(.312) | .415 | 3.058** |
| 모학력 | -.090(.290) | -.045 | -.309 | -.116(.285) | -.059 | -.408 |
| 모한국어 실력 | -.233(.198) | -.155 | -1.177 | -.208(.195) | -.138 | -1.070 |
| 학교 성적 | .265(.140) | .286 | 1.896+ | .287(.138) | .310 | 2.084* |
| 차별 경험 | -.334(.184) | -.271 | -1.810+ | | | |
| 언어 갈등 | | | | -.237(.139) | -.271 | -1.705+ |
| 통계량 | $R^2=.331(F=2.699, p=.012)$ | | | $R^2=.370(F=2.815, p=.008)$ | | |

$p<0.10$ * $p<0.05$ ** $p<0.01$ *** $p<0.001$

3. 3. 차별경험과 언어갈등이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

차별경험이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25.2%이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6.101$, $p<.001$). 학년($\beta=-.240$, $P<.10$), 부학력($\beta=.334$, $P<.05$), 차별경험($\beta=-.477$, $P<.05$)이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년이 낮을수록 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교우관계가 좋고, 차별경험이 낮을수록 교우관계가 좋은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언어갈등이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았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37.0%이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2.815$, $p<.01$). 또한 학년($\beta=-.240$, $P<.10$), 부학력($\beta=.334$, $P<.05$), 언어갈등($\beta=-.264$, $P<.10$)이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년이 낮을수록 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교우관계가 좋고, 언어갈등이 낮을수록 교우관계가 좋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년, 부학력, 차별경험, 언어갈등은 다문화가정 아동의 교우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차별경험과 언어갈등이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결과
Table 4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over the influence of discrimination experience and language conflict on friend relationships

| 모형 | 모 델 1 | | | 모 델 2 | | |
|---------|---------------------------------------|---------|---------|---------------------------------------|---------|---------|
| | B(S.E) | β | t | B(S.E) | β | t |
| (상수) | 3.641(.562) | | 6.483 | 3.471(.564) | | 6.154 |
| 성별 | -.010(.202) | -.007 | -.046 | -.046(.200) | -.031 | -.232 |
| 나이 | .221(.541) | .054 | .408 | .372(.542) | .090 | .687 |
| 학년 | -.359(.204) | -.240 | -1.757+ | -.377(.202) | -.252 | -1.870+ |
| 경제 수준 | -.002(.325) | -.001 | -.008 | -.002(.325) | -.001 | -.008 |
| 부학력 | .894(.387) | .334 | 2.313* | .894(.387) | .334 | 2.313* |
| 모학력 | -.252(.354) | -.109 | -.711 | -.252(.354) | -.109 | -.711 |
| 모한국어 실력 | -.037(.241) | -.021 | -.151 | -.037(.241) | -.021 | -.151 |
| 학교 성적 | .2469(.171) | .230 | 1.455 | .249(.171) | .230 | 1.455 |
| 차별 경험 | -.685(.275) | -.477 | -2.491* | | | |
| 언어 갈등 | | | | -.269(.172) | -.264 | -1.561+ |
| 통계량 | R ² =.252(F=6.101, p=.000) | | | R ² =.288(F=5.689, p=.000) | | |

p<0.1 * p<0.05 ** p<0.01 *** p<0.001

3. 4. 차별경험이 학습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사지지 조절효과

차별경험과 언어갈등이 학습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사지지의 조절효과 분석결과 <표 5>와 같다. 1단계에서는, 일반적 특성을 투입한 결과 F 값이 2.513로서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이를 살펴보면 경제수준 ($\beta = -.299, p < .05$)과 부학력 ($\beta = .398, p < .05$)이 학습활동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학습활동을 잘하고,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습활동 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차별경험과 교사지지를 투입한 결과 F 값이 7.943로서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R² 값은 .650로서 이모형에 투입된 변수들이 종속변수 변량을 약 65.0%를 설명하고 있으며, 부학력 ($\beta = .191, p < .10$), 성적 (.194, p<.10), 차별경험(-.269, p<.10), 교사지지 ($\beta = .650, p < .001$)가 학습활동적응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즉, 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성적이 좋을수록, 차별경험이 낮을수록, 교사의 지지가 높을수록 학습활동 적응은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3단계에서는, 차별경험과 교사지지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결과, 상호작용항(차별경험교사지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beta = -1.444, p < .001$). 즉, 차별경험이 학습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교사지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R² 값은

.689로 이모형에 투입된 변수들이 종속변수 변량을 약 68.9%를 설명하고 있다. 이모형에 투입된 변수들의 효과를 보면, 부학력 ($\beta = .194, p < .10$), 학교성적 ($\beta = .230, p < .05$), 차별경험 ($\beta = 1.068, p < .10$), 교사지지 ($\beta = 1.538, p < .001$), 상호작용항 ($\beta = -.545, p < .05$)이 학습활동 적응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즉, 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성적에 대한 만족이 높을수록 차별경험이 낮을수록, 교사지지가 높을수록 학습활동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의 지지에 따라 차별경험이 학습활동에 미치는 효과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차별경험교사지지 경우는 배타감이 음수로 나타나 차별경험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사의 지지가 높으며 차별경험을 겪는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습활동은 높고, 교사의 지지가 낮을수록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습활동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5. 차별경험이 학습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사지지 조절효과 회귀분석 결과

Table 5.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over the influence of discrimination experience and language conflict on academic activities, with control effect of teachers' support

| 모형 | 모 델 1 | | | 모 델 2 | | | 모 델 3 | | |
|------------|---------------------------------------|---------|---------|---------------------------------------|---------|----------|---------------------------------------|---------|----------|
| | B | β | t | B | β | t | B | β | t |
| (상수) | 3.242 | | 7.639 | .965 | | 1.828 | -.185 | -.144 | -1.486 |
| 성별 | -.157 | -.122 | -.956 | -.092 | -.071 | -.737 | .209 | .059 | .663 |
| 나이 | .155 | .044 | .347 | .165 | .047 | .499 | .209 | .059 | .663 |
| 학년 | -.228 | -.178 | -1.374 | .071 | .056 | .551 | .137 | .107 | 1.079 |
| 경제 수준 | -.592 | -.299 | -2.364* | -.102 | -.051 | -.506 | -.256 | -.130 | -1.268 |
| 부 학력 | .914 | .398 | 2.877** | .439 | .191 | 1.760+ | .446 | .194 | 1.878+ |
| 모 학력 | -.163 | -.083 | -.555 | -.083 | -.042 | -.387 | .029 | .015 | .139 |
| 모한국어 실력 | -.152 | -.101 | -.771 | -.117 | -.078 | -.796 | -.031 | -.020 | -.210 |
| 학교 성적 | .155 | .167 | 1.202 | .194 | .210 | 1.852+ | .231 | .230 | 2.122* |
| 차별 경험 | | | | -.332 | -.269 | -1.942+ | 1.314 | 1.068 | 1.851+ |
| 교사 지지 | | | | .624 | .650 | 6.140*** | 1.476 | 1.538 | 3.982*** |
| 차별경험 *교사지지 | | | | | | | -.545 | -1.444 | -2.382* |
| 통계량 | R ² =.287(F=2.513, p=.022) | | | R ² =.650(F=7.943, p=.001) | | | R ² =.689(F=8.477, p=.001) | | |

p<0.1 * p<0.05 ** p<0.01 *** p<0.001

3. 5. 언어갈등이 학습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사지지 조절효과

언어갈등이 학습활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사의 지지 조절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1단계에서는, 일반적 특성을 투입한 결과 F 값이 2.513로서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이를 분석하면 경제수준($\beta = -.299, p < .05$)과 부학력($\beta = .398, p < .05$)이 학습활동이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다. 즉,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학습활동을 잘하고,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다문화 아동의 학습활동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언어갈등과 교사지지를 투입한 결과 F 값이 8.610로서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R^2 값은 .613로서 이모형에 투입된 변수들이 종속변수 변량을 약 61.3%를 설명하고 있으며, 부학력($\beta = .158, p < .01$), 언어갈등($-.091, p < .05$), 교사지지($\beta = .701, p < .001$)가 학습활동적응에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즉, 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언어갈등이 낮을수록, 교사의 지지가 높을수록 학습활동적응은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3단계에서는, 언어갈등과 교사지지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결과, 상호작용항(언어갈등교사지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beta = -.222, p < .10$). 즉, 언어갈등이 학습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교사지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R^2 값은 .634로 이모형에 투입된 변수들이 종속변수 변량을 약 63.4%를 설명하고 있다. 이모형에 투입된 변수들을 살펴보면, 언어갈등($\beta = -.203, p < .01$), 교사지지($\beta = .809, p < .001$), 상호작용항($\beta = -.222, p < .10$)이 학습활동적응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즉, 언어갈등이 낮을수록, 교사지지가 높을수록 학습활동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교사의 지지에 따라 언어갈등이 학습활동 적응에 미치는 효과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언어갈등교사지지의 경우는 베타 값이 음수로 나타나 언어갈등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사의 지지가 높으면 언어갈등을 겪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습활동 적응은 높고, 교사의 지지가 낮을수록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습활동 적응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6. 언어갈등이 학습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사지지 조절효과 회귀분석 결과

Table 6.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over the influence of language conflict on academic activities, with control effect of teachers' support

| 모형 | 모델 1 | | | 모델 2 | | | 모델 3 | | |
|------|-------|---------|---------|-------|---------|--------|-------|---------|--------|
| | B | β | t | B | β | t | B | β | t |
| (상수) | 3.242 | | 7.639 | .842 | | 1.710 | -.046 | -.038 | -.398 |
| 성별 | -.157 | -.122 | -.956 | -.004 | -.003 | -.029 | -.049 | -.038 | -.398 |
| 나이 | .155 | .044 | .347 | .058 | .016 | .172 | .143 | .040 | .428 |
| 학년 | -.228 | -.178 | -1.374 | .045 | .035 | .339 | .051 | .040 | .393 |
| 경제수준 | -.592 | -.299 | -2.364* | -.282 | -.143 | -1.490 | -.236 | -.119 | -1.252 |

| | | | | | | | | | |
|-----------|-------------------------------|-------|---------|-------------------------------|-------|----------|-------------------------------|-------|----------|
| 부학력 | .914 | .398 | 2.877** | .348 | .158 | 1.380** | .354 | .154 | 1.429* |
| 모학력 | -.163 | -.083 | -.555 | -.035 | -.018 | -.169 | .057 | .212 | .268 |
| 모한국어실력 | -.152 | -.101 | -.771 | -.094 | -.063 | -.635 | -.130 | -.086 | -.880 |
| 학교성적 | .155 | .167 | 1.202 | .167 | .200 | 1.672 | .176 | .189 | 1.650 |
| 언어갈등 | | | | -.079 | -.091 | -.916* | -.177 | -.203 | -1.716* |
| 교사지지 | | | | .672 | .701 | 6.581*** | .776 | .809 | 6.570*** |
| 언어갈등*교사지지 | | | | | | | -.084 | -.222 | -1.666+ |
| 통계량 | $R^2 = .287(F=2.513, p=.022)$ | | | $R^2 = .613(F=8.610, p=.000)$ | | | $R^2 = .634(F=8.307, p=.000)$ | | |

p<0.1 * p<0.05 ** p<0.01 *** p<0.00

3. 6. 차별경험이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사지지 조절효과

차별경험이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사지지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1단계에서는, 일반적 특성을 투입한 결과 F 값이 1.519로서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이를 분석하면 학년($\beta = -.288, p < .05$)과 부학력($\beta = .321, p < .05$)이 교우관계에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다. 즉, 학년이 낮을수록 교우관계를 잘하고,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다문화가정 아동의 교우관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언어갈등과 교사지지를 투입한 결과 F 값이 8.124로서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R^2 값은 .629로서 이모형에 투입된 변수들이 종속변수 변량을 약 62.9%를 설명하고 있다. 부학력($\beta = .154, p < .01$), 차별경험($-.132, p < .10$), 교사지지($\beta = .103, p < .001$)가 교우관계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즉, 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차별경험이 낮을수록, 교사의 지지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은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3단계에서는, 차별경험과 교사지지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결과, 상호작용항(차별경험교사지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다($\beta = -1.550, p < .05$). 이를 설명하면 차별경험이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교사지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R^2 값은 .673으로 이모형에 투입된 변수들이 종속변수 변량을 약 67.3%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모형에 투입된 변수들의 효과를 분석해 보았다. 성적($\beta = .214, p < .05$), 차별경험($\beta = -1.280, p < .05$), 교사지지($\beta = 1.617, p < .001$), 상호작용

항($\beta = -1.550, p < .05$)이 교우관계를 유의미하게 설명 하였다. 즉, 성적에 대한 만족이 높을수록 차별경험이 낮을수록, 교사지지가 높을수록 교우관계를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의 지지에 따라 차별경험이 교우관계에 미치는 효과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차별경험/교사지 지 경우는 베타값이 음수로 나타나 차별경험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사의 지지가 높으면 차별 경험을 겪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교우관계는 높고, 교사의 지지가 낮을수록 다문화가정 아동의 교우관계는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7. 차별경험이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사지지 조절효과 회귀분석 결과

Table 7.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over the influence of discrimination experience on friend relationships, with control effect of teachers' support

| 모형 | 모델 1 | | | 모델 2 | | | 모델 3 | | |
|--------|------------------------------------|---------|---------|------------------------------------|---------|----------|------------------------------------|---------|----------|
| | B(S.E) | β | t | B(S.E) | β | t | B(S.E) | β | t |
| (상수) | 3.200 | | 6.084 | 1.015 | | 1.890 | -1.716 | | -1.443 |
| 성별 | .065 | .043 | .320 | -.064 | -.049 | -.507 | -.169 | -.131 | -1.342 |
| 나이 | .162 | .039 | .292 | .060 | .017 | .182 | .125 | .35 | .399 |
| 학년 | -.431 | -.288 | -2.089* | .090 | .070 | .683 | .157 | .122 | 1.229 |
| 경제 수준 | -.323 | -.140 | -1.041 | -.176 | -.089 | -.879 | -.329 | -.166 | -1.657 |
| 부 학력 | .860 | .321 | 2.184* | .353 | .154 | 1.419** | .376 | .164 | 1.592 |
| 모 학력 | -.317 | -.138 | -.871 | -.062 | -.032 | -.285 | .055 | .028 | .258 |
| 모한 | .041 | .024 | .169 | -.133 | -.089 | -.890 | -.037 | -.025 | -.255 |
| 국어 실력 | .079 | .073 | .497 | .176 | .189 | 1.650 | .199 | .214 | 1.963* |
| 성적 | | | | | | | | | |
| 차별 경험 | | | | -.162 | -.132 | -1.146+ | -1.576 | -1.280 | -2.261* |
| 교사 지지 | | | | .639 | .103 | 6.197*** | 1.552 | 1.617 | 4.170*** |
| 차별 경험* | | | | | | | -.585 | -1.550 | -2.541* |
| 교사 지지 | | | | | | | | | |
| 통계 량 | $R^2 = .196 (F = 1.519, p = .017)$ | | | $R^2 = .629 (F = 8.124, p = .001)$ | | | $R^2 = .673 (F = 8.812, p = .001)$ | | |

p<0.1 * p<0.05 ** p<0.01 *** p<0.001

3. 7. 언어갈등이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사지지 조절효과

언어갈등이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사의 지지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1단계에서는, 일반적 특성을 투입한 결과 F값이 1.519로서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이를 분석하면 학년(β

$= -.288 p < .05$)과 부학력($\beta = .321 p < .05$)이 교우관계에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다. 즉, 학년이 낮을수록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교우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언어갈등과 교사지지를 투입한 결과 F값이 7.904로서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다. 또한 R2 값은 .622로서 이모형에 투입된 변수들이 종속변수 변량을 약 62.2%를 설명하고 있으며, 언어갈등($\beta = -.069, p < .05$) 교사지지($\beta = .693, p < .001$)가 교우관계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3단계에서는, 언어갈등과 교사지지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결과, 상호작용항(언어갈등교사지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beta = -.624, p < .10$). 즉, 언어갈등이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교사지지에 따라 차이가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R2 값은 .631로 이모형에 투입된 변수들이 종속변수 변량을 약 63.1%를 설명하고 있다. 이모형에 투입된 변수들의 효과를 보면 부학력($\beta = .161 p < .05$)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언어갈등이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에서는 “교사지지는 조절효과를 가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8. 언어갈등이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사지지 조절효과 회귀분석결과

Table 8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over the influence of language conflict on friend relationships, with control effect of teachers' support

| 모형 | 모델 1 | | | 모델 2 | | | 모델 3 | | |
|-------------|------------------------------------|---------|---------|------------------------------------|---------|----------|------------------------------------|---------|--------|
| | B(S.E) | β | t | B(S.E) | β | t | B(S.E) | β | t |
| (상수) | 3.200 | | 6.084 | .660 | | 1.274 | .141 | | .201 |
| 성별 | .065 | .043 | .320 | -.029 | -.023 | -.239 | -.092 | -.071 | -.677 |
| 나이 | .162 | .039 | .292 | .060 | .017 | .180 | .117 | .033 | .346 |
| 학년 | -.431 | -.288 | -2.089* | .062 | .048 | .465 | .064 | .050 | .482 |
| 경제 수준 | -.323 | -.140 | -1.041 | -.234 | -.118 | -1.207 | -.361 | -.182 | -1.598 |
| 부 학력 | .860 | .321 | 2.184* | .394 | .172 | 1.544 | .369 | .161 | 1.444 |
| 모 학력 | -.317 | -.138 | -.871 | -.115 | -.058 | -.520 | -.073 | -.037 | -.329 |
| 모한 | .041 | .024 | .169 | -.072 | -.048 | -.481 | -.096 | -.064 | -.639 |
| 국어 실력 | .079 | .073 | .497 | .108 | .116 | 1.102 | .130 | .140 | 1.306 |
| 성적 | | | | | | | | | |
| 언어갈등 | | | | -.060 | -.069 | -.687* | .553 | .634 | 1.202 |
| 교사 지지 | | | | .665 | .693 | 6.514*** | .902 | .939 | 3.768 |
| 언어갈등* 교사 지지 | | | | | | | -.181 | -.624 | -1.091 |
| 통계량 | $R^2 = .196 (F = 1.519, p = .017)$ | | | $R^2 = .622 (F = 7.904, p = .001)$ | | | $R^2 = .631 (F = 7.322, p = .001)$ | | |

p<0.1 * p<0.05 ** p<0.01 *** p<0.001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이중문화스트레스 요인인 차별경험과 언어갈등이 학교생활적응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교사지지가 보호요인으로서 조절효과 있는지를 검증하여 보았다.

첫째, 차별경험과 언어갈등은 학습활동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父)의 학력이 높을수록 학습활동이 높고, 학교성적이 좋을수록 언어갈등이 낮으며 학습활동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다문화가정 아동은 부(父)의 학력이 성적, 차별경험, 언어갈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선행연구와 비교하면 아버지의 외국어 학습여부와 어머니의 한국어 학습여부를 주장한 [10]의 연구와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부모에게만 학습역할을 극한 시킬 것이 아니라, 학교 내에서도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위축감을 감소할 보완책'이 요구된다.

둘째, 차별경험과 언어갈등이 교우관계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학년이 낮을수록 부(父)의 학력이 높을수록 교우관계가 좋고, 언어갈등이 낮을수록 교우관계가 좋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아버지의 학력은 높을수록 이중문화에서 오는 아동의 차별과 언어갈등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건강한 교우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일반아동의 다문화친화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해도를 높여 다문화가정 아동과 함께 '학교적응력, 정서조절력, 사회적응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된다.

셋째, 차별경험과 언어갈등이 학습활동에 미치는 영향에는 각각 교사지지에 따라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성적에 대한 만족이 높을수록, 차별경험과 언어갈등이 낮을수록, 교사지지가 높을수록 학습활동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교사의 지지가 높으면 차별경험과 언어갈등을 겪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습활동은 높고, 교사지지가 낮을수록 학습활동적응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는 "교사지지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는 [20], [13], [9]과도 일치하다.

넷째, 차별경험과 언어갈등이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각각 다른 차이를 보였다. 우선, 차별경험이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교사지지의 조절효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사가 다문화가족 아동에 대한 관심이 높고, 다문화교육에 대한 지식이 많으며 적극적인 때 아동들의 학업성취도와 학교생활적응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9]의 연구에서도

언급되었다. 반면, 언어갈등이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교사지지의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살펴보면 [22]에서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즉, 다문화가족 아동들은 교사와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적절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교사 역시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경험부족과 개별 학습 지도의 어려움 등으로 학생 간에 상호작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다문화가정 아동의 이해도가 낮은 교사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특성에 대한 전문적인 교사 연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 하고자 한다.

첫째,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하여 이해를 높이고 편견이나 차별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 '법률 및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다문화가정 아동을 도와주고 지원해 주는 일이나 정책들이 그들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배려가 요구된다.

끝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고 본다. 분석 자료와 방법이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있고 횡단적 연구이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적 연구와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 [1]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The Current status of the Migrant Workers at the level of a local Government", Local Autonomy Administration Division, 2014
- [2] Ministry of Education, "Main statistics of multi-cultural students and education", 2014
- [3] Ministry of Education, "Study research on the Current status of the multi-cultural families", Ulsan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2014
- [4]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social adjustment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child welfare service provision", The report of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1
- [5] Naver News article 2014.10.3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1090667>
- [6]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 Development, "A Study on the Current Education of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2006
- [7] Kwon Soo Jin, "Comparison of Characteristics in Generative Naming of Multi-cultural Family and School-Aged Children of Ordinary Family", Myongji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06
- [8] Park Gap Lyon, "A Study on the Identities of Children whose Mothers are Female Marriage Immigrants in Korea", Graduate School.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14
- [9] Park Sun Hee, "The Characteristics and Social Adjustment in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29, 125-154, 2009
- [10] Park Eun young, "An analysis of the Language use of bilingual children in multilingual environments", The Japanese Modern Association of Kofea . Vol 46 , 2001
- [11] Jeong Eun-Hee, "A Study on the Language Development and Environment of Children from Internationally Married Couple Living in an Agricultural Village ", Korean Speech-Language & Hearing Association, 13(3), 3-52, 2004
- [12] Yu Bong Ae. Ok Kyung Hee,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s on School Adjustment, Emotional Regulation, and Social Adjustment in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 The Korean Association of Family Welfare, 18(4), 511-538, 2013
- [13] Hong Jeong Mi, "Ecological Variables Affecting Adjustment to School Life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Graduate School of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08
- [14] Berry, J. W., Kim. U., Minde. t. & Mok, D, "Comparative studies of acculturative stres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1: 491-511, 1987
- [15] Kim, Yu-mi, "A Study on the Effects of Acculturative Stress on School Adjustment of Multi-cultural Children",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2011
- [16] Nho Choong Rai , "Use of Rosenberg's self-esteem and collective self-esteem as predicting variables for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Korean American adolesc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Vol.10, 2000
- [17] Jones. J. M, "Social support and health", Medical care. 15(5), 47-58, 1997
- [18] Park Kei-ran, "A Study on the Factors School Life Adjustment of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Department of Family and Housing Studies Graduate School of Yeungnam University, 2010
- [19] Catts, H., & Kamhi G. A. G, *Language and reading disabilities*, Boston, Ma: Allyn and Bacon, 2005
- [20] Jeong Hyeon Yeong,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School Adjustment of Mixed Ethnic Children ", Graduate School of Soong Sil University, 2006
- [21] Kim, Gi duk. Park, Min seo,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school adaptations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Research institute of Social Science, Vol.48 No.1, 92-121, 2009
- [22] Mun, Ho Hwan, "Factors Influencing School Adjustmen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from Multi cultural Families.", Dep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2014
- [23] Wentzel, K. R, "Socio-metric status and adjustment in middle school: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3(1), pp. 5-28, 2003
- [24] Jeon, Pu-Reu-Na, "A comparative study on school adjustment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racially-homogeneous families", Dep of Social Welfare The Graduate School.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2010
- [25] Park Jin Uk, "A study on communication

learning for subject adjustment of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 Dep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Korea University, 2009

- [26] Park Eun-hee, “ The Effect of a Realty Therapy Group Counseling Program on Enhancing Elementary School Children’s Responsibility ”, The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buk, 2003

저 자 소 개



노선덕

2013: 조선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

현 재: 유아지역아동센터장

관심분야: 아동학, 청소년복지,
가족복지

e-mail: sdr125@hanmail.net



강길현

2013: 조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

현 재: 호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

관심분야: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자립시설 운영

e-mail : opswa@hanmail.net